김도영 '이상 無'…KIA, 완전체 속도 낸다

햄스트링 재검 결과 "특이사항 없다"
오늘부터 러닝·기술훈련…실전 준비
'팔꿈치 염증' 올러도 불펜 피칭 앞둬

KIA 타이거즈의 '완전체 구성'에 속도가 붙는다.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김도영이 '이상 무' 소견을 받아 본격적인 복귀 준비에 나선다 .

KIA는 22일 "김도영이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재검진을 받았고, 특이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가벼운 캐치볼과 티배팅 훈련을 했던 김도영은 재검진 결과에 따라 23일부터 훈련 강도를 높인다. 러닝을 포함한 기술적인 훈련을 소화하면서 실전을 준비하게 된다.

김도영은 앞서 지난 3월에도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었다.

김도영은 NC 다이노스와의 개막전에서 시즌 첫 안타를 기록한 뒤 좌측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면서 교체됐고, 검진 결과 햄스트링 손상 진단을 받았다. 손상 단계 중 가장 낮은 '그레이드1' 소견을 받았던 김도영은 4월 25일 LG와의 경기를 통해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하지만 5월 27일 키움전에서 다시 한번 김도영이 주저앉았다.

김도영은 이날 5회말 적시타를 치고 출루한 뒤 2루 도루를 시도했다. 김도영은 세이프 판정은 받았지만 오른쪽 허벅지 통증으로 덕아웃으로 물러났고, 햄스트링 부상으로 다시 그라운드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이번에는 병원 검진 결과 '그레이드 2' 소견을 받았다. 여기에 두 번째 부상이었던 만큼 KIA는 신중히 김도영의 복귀를 준비했다.

올 시즌 야수진의 줄부상으로 힘든 전반기를 보냈던 KIA는 부상 선수들의 복귀로 후반기 순위 싸움에 힘을 얻었다.

후반기 첫 경기가 치러진 지난 20일 NC전에서는 3명이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이의리가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다시 공을 던졌다.

종아리 부상으로 재활을 해왔던 나성범과 김선빈은 5번 타자와 6번 타자로 나란히 타석에 서면서 복귀전을 치렀다.

KIA는 세 명의 주축 선수가 돌아온 이날 3-2 승리를 거두며 후반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이범호 감독도 주축 선수들의 복귀를 반겼다.

이범호 감독은 22일 LG전에 앞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나성범과 김선빈은 경기를 많이 해봤던 선수들이고, 생각한 플레이에서 많이 벗어난 선수들이 아니다. 경기하는 데 있어서 심플해진 것 같다. 1주일 정도 게임 나가면서 하다 보면 하체 안정감이 생기고 나성범의 장타가 나올 것 같다. 선빈이도 조절 잘해주면 컨디션 올라올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이범호 감독은 이의리의 복귀전에 대해서는 "구속적인 면에서 좋았고, 체인지업도 더 정교해진 게 보였다. 65구에서 끊었지만 괜찮아지면 80구, 100구 가까이 하면서 더 좋아질 것이다"며 "홈런은 맞았지만 잘 들어간 공을 상대가 잘 쳤다. 재활이 잘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마운드에도 복귀 전력이 있다.

팔꿈치 염증으로 쉬어갔던 아담 올러도 후반기 출격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군 선수단과 함께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올러는 22일에는 90% 정도로 캐치볼을 하면서 몸상태를 체크했다.

이범호 감독은 "올러가 90%까지 던졌고 무리 없을 것으로 본다. 23일 마지막으로 100% 점검하고 불펜 피칭을 할 계획이다. 이후 퓨처스에서 가볍게 던진 뒤 1군에서 던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올러는 지난 6월 25일 키움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승리 투수가 된 뒤 팔꿈치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엔트리에서 빠졌다. 단순 염증 진단을 받았지만 회복이 더디면서 예정보다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

한편 KIA에서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올러는 앞서 16경기에 나와 96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3.03, 8승 3패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재활을 했던 KIA 김도영이 22일 병원 재검진 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기술훈련에 돌입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폭우 성금 5000만원 기탁

'시민 영웅' 최승일씨 오늘 시구

KIA 타이거즈가 역대급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해 광주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수해 복구 성금 5000만원을 기탁한다.

성금은 KIA 타이거즈 선수단, 코칭 스태프 및 임직원이 힘을 모아 마련했으며, 구단도 힘을 보탰다.

성금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들의 피해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KIA 주장 나성범은 "광주는 우리 팀의 연고지이자 구단과 선수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신속하게 복구가 이루어져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A는 또 폭우 속에서 생명을 구한 '시민 영웅'을 시구자로 초대한다.

주인공은 지난 17일 20분간의 사투 끝에 빗물에 휩쓸려 맨홀에 빠진 70대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의인 최승일 씨다. 최씨는 23일 홈경기 시구자로 챔피언스필드를 찾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김경민·변준수 뉴캐슬전 참가

팀 K리그 추가 명단 발표

광주FC의 아사니, 김경민, 변준수가 K리그 대표 선수로 뉴캐슬전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나설 팀 K리그 추가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광주 '수문장' 김경민과 수비수 변준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 공격수(FW) 부문에는 10시즌째 대구 간판스타로 뛰고 있는 세징야와 함께 지난해 K리그2 득점왕에 빛나는 안양 모따가 추가 선수로 선정됐다.

미드필더(MF)에서는 김동현(강원), 루안(수원FC), 이창민(제주), 황도윤(서울)이 발탁됐다.

'팬 일레븐' 후보였던 김동현과 루안은 팀 K리그를 이끄는 김판곤 울산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제주 '캡틴' 이창민과 서울의 '젊은 피' 황도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비수(DF) 포지션에서는 변준수와 함께 김영권(울산), 안톤(대전)이 명단에 포함됐다.

동아시안컵을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변준수는 노련한 '울산 주장' 김영권, 탄탄한 실력을 과시하는 안톤과 함께 팀 K리그의 수비를 책임진다.

지난해 '늦깎이 국가대표'로 화제를 모았던 김경민은 팀 K리그에서 다시 한번 실력을 발휘하게 됐다.

광주를 대표하는 공격수 아사니는 앞서 팬투표를 통해 전진우(전북·2만 2397표)와 함께 이동경(김천·1만9220표)에 이어 1만7980표를 받으면서 '팬 일레븐'으로 선정됐다.

팀 K리그를 이끄는 김판곤 감독과 함께 코치를 맡은 이정효 감독은 '팬 일레븐' 명단을 토대로 추가 선수를 선발했다.

팀 K리그 선수단은 30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뉴캐슬과의 맞대결에 나선다.

선수단은 이에 앞서 28·29일에는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되는 'K리그-주토피아 팝업스토어'에 참가해 팬 사인회, 팬 밋업 등의 행사를 갖고 팬들을 만난다.

◇팀 K리그 선수 최종 명단(22명)

FW:모따(안양), 세징야(대구), 전진우(전북), 아사니(광주), 이동경(김천)

MF:김동현(강원), 김진규(전북), 루안(수원FC), 보야니치(울산), 오베르단(포항), 이창민(제주), 황도윤(서울)

DF:김문환(대전), 김영권(울산), 박진섭(전북), 변준수(광주), 안톤(대전), 이태석(포항), 카이오(대구), 한현서(포항)

GK:김경민(광주), 조현우(울산)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메이저' 전초전

LPGA ISPS 한다 스코틀랜드 여자오픈 24일 개막…김효주 등 한국 15명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스코틀랜드에서 '전초전'의 막을 올린다.

이번 주 LPGA 투어 대회는 ISPS 한다 스코틀랜드 여자오픈(총상금 200만달러)으로, 24일부터 나흘간 영국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던도널드 링크스(파72·6538야드)에서 개최된다.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LET)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선수들에겐 31일부터 웨일스에서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을 앞두고 링크스 코스에 적응하며 실전 점검을 마무리할 기회다.

한국 선수로는 2017년 이미향, 2019년 허미정이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올해는 15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해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 중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우승한 출전자로는 김효주〈사진〉, 임진희, 김아림이 있다.

3월 포드 챔피언십에서 정상을 밟은 김효주, 개막전인 1월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김아림, 지난달 '팀 대회' 다우 챔피언십에서 이소미와 우승을 합작해 첫 승을 신고한 임진희가 시즌 2승을 노린다.

특히 김효주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던도널드 링크스에서 열렸던 2023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했고 2022년엔 공동 3위에 올라 강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우승은 없지만 5차례 톱10에 들며 CME 글로브 포인트 랭킹 8위를 달리는 최혜진, 8년 전 이 대회 우승자 이미향, 신인 윤이나 등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즌 아직 우승이 없는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는 스코틀랜드 오픈에 처음으로 출전하며, 2주 전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을 제패한 그레이스 김(호주)은 2연승을 정조준한다.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자 이민지(호주), US여자오픈 챔피언 마야 스타르크(호주)도 출전한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통산 두 번째 우승을 거뒀던 로런 코글린(미국)은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아마추어 세계랭킹 1위 출신의 로티 워드(잉글랜드)는 프로 전향 이후 첫 대회를 치른다.

워드는 이달 초 여자 프로골프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LET) 아일랜드오픈에서 우승하고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3위에 오르며 주목받은 새내기다. /연합뉴스

'4총사' 틈새전

임성재·김시우 등 한국 4명 25일 PGA 3M 오픈 출전…'톱10' 불참

임성재와 김시우, 안병훈, 김주형 등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인 4총사가 정규 시즌 막판 틈새시장을 노린다.

임성재〈사진〉, 김시우, 안병훈, 김주형은 오는 25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블레인의 TPC 트윈시티즈(파71)에서 열리는 PGA 투어 3M 오픈(총상금 840만 달러)에 출전한다.

PGA 투어 정규 시즌 대회는 3M 오픈과 이어지는 윈덤 챔피언십 둘만 남았다.

정규 시즌이 끝나면 곧바로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며, 한국인 4총사의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않다.

페덱스컵 랭킹에서 임성재가 29위, 김시우 43위, 안병훈 67위, 그리고 김주형은 89위로 밀렸다.

가장 순위가 높은 임성재조차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진출을 낙관할 수 없다.

남은 정규시즌 2개 대회에서 최대한 페덱스컵 랭킹을 끌어올려야 한다. 시즌 첫 우승을 이룬다면 더없이 좋다.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 디오픈을 마치고 곧바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 중북부 미네소타주까지 날아온 이유다.

출전 선수 명단을 보면 기회가 보인다.

세계랭킹 10위 이내, 페덱스컵 랭킹 10위 이내 선수는 단 한 명도 출전하지 않는다.

임성재는 페덱스컵 랭킹으로는 출전 선수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

11위 매버릭 맥닐리와 22위 샘 번스, 23위 크리스 고터럽(이상 미국) 3명이 임성재보다 높다.

세계랭킹으로도 임성재는 이들 3명과 윈덤 클라크(미국)에 이어 5번째다.

하지만 PGA 투어닷컴은 대회에 앞서 15명까지 우승 후보를 꼽는 파워랭킹에 한국 선수는 한 명도 포함하지 않았다.

RBC 캐나다오픈 준우승 등 4번 톱10에 오른 통산 5승의 번스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다.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제치고 우승한 뒤 디오픈에서도 3위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의 고터럽도 요주의 대상이다.

디오픈에서 공동 4위에 올라 사기가 오른 클라크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지난해 챔피언 조나탄 베가스(베네수엘라)는 대회 사상 첫 2연패에 도전한다. /연합뉴스